국립 갯벌연구소 무안 온다

전남도 "유치 성사단계…국제 갯벌연구소 설립도 추진"

무안 생태갯벌센터가 있는 무안군 해제면 일대에 국립 갯벌연구소 유치와 국제 갯벌연구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이 일대가 갯벌 연구 및 체험의 메카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군산시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의 무안 유치가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러 무안 일대가 국내 최대의 갯벌 연구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8일 무안군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의 무안 이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갯벌연구소가 이전되면 무안 생태갯벌센터 인근이 갯벌 연구와 생태 체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사는 갯벌연구소가 옮겨오면 무안 생태갯벌센터 주변에 숙박시설도 건립해 전국에서 갯벌 탐사객들이 자연스럽게 무안으로 모여들게 하겠다고 밝혔다.

갯벌연구소는 연구원을 포함해 인력은 7명 밖에 되지 않지만 15개의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연구소 가운데 하나로, 1929년 설립이후 80여년동안 전국의 갯벌 및 하구 환경관리, 갯벌어장의 자원평가 및 관리, 갯벌어장의 회복과 생산성 향상 등 국내 갯벌 연구의 중심센터 역할을 해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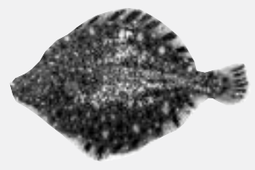
전남도는 이와 함께 국제 갯벌연구소를 무안생태갯벌센터 인근에 설립해 세계 최대 규모인 갯벌 단지인 와덴해(독일·네델란드·덴마크) 등과의 국제적인 갯벌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국제 갯벌연구소 설립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상반기중에 인력 구성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립 갯벌연구소는 국내 갯벌관련 연구를 맡고 국제 갯벌연구소는 갯벌 연구보다는 독일·네델란드 등 갯벌 관련 선진국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교류를 맡게 된다"며 "두 연구소가 들어서면 전국 갯벌의 40%를 보유한 전남이 명실상부한 갯벌 생태 관광과 연구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동해안 '강도다리' 서해서도 "잘 크네"



수산과학원 서해연구소, 양식기술 개발

동해안 특산품종인 '강도다리' 〈사진〉가 겨울철에도 서해에서 양식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서해안 어류양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자연 수온상태의 실내수조에서 강도다리 월동 사육시험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넙치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양식대상 어류는 겨울철 혹한기에는 폐사에 이르게 되지만 강도다리의 경우 가온(加溫)을 하지 않은 수온 0.2도의 혹한기에도 먹이 섭식과 더불어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가자미과 어류인 '강도다리'는 주로 동해안 연안 수심 150m 내에서 서식하며 1년이면 치어상태에서 300~400g 정도의 크기로 빠르게 성장해 경제성이 있는 어종으로 각광을 박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종묘생산 기술을 확립, 현재 동해안에서 활발하게 양식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서해안 지역은 겨울철 자연해수 온도가 빙점까지 떨어져 월동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양식이 힘들었다.

서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경유나 벙커 C유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녹색양식 기술개발 품종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서해안 어류양식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신안 증도 주민 절반 "아토피가 사라졌다"

친환경 세제 효과…생태계도 되살아나

신안군이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신안 증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친환경세제 보급 사업이 6개월만에 생태계 보호 등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지난해 7월 증도면 전체 870가구에 6개월 분량의 친환경 세탁, 주방 세제를 공급하고 합성세제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결과 아토피, 주부습진이 사라지고 도랑의 수질이 개선되면서 자취를 감췄던 물고기가 돌아오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세제 보급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자 최근 91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토피와 주부습진이 사라졌다는 응답이 46.2%를 차지했다.

또 마을앞 도랑이 맑아지면서 자취를 감췄던 우렁이와 붕어, 가물치가 돌아왔고 수생식물도 자라는 등 생태계가 차츰 회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9일 증도면에서 친환경세제 보급사업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과 발표와 함께 섬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안 등을 모색한다.

군은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올해도 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증도면 전 가구에 친환경 세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신안 증도는 2007년 '슬로시티'로 지정된 데 이어 2008년 갯벌 도립공원, 지난해 5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최근 갯벌 31.3㎢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섬이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함평 농촌개발 본격화

철성권역 실시설계 추진

함평군은 대동면 철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낙후 농촌마을의 정주기반 확충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생활환경과 경관정비, 소득기반 확충,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펼치는 주민 참여형 공모사업이다.

함평 대동 철성권역은 지난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오는 2014년까지 대동면 월송리 등 7개 마을에 총 4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단호박 저장·가공시설, 철성산 등산로와 주차장 조성, 경관가로수 심기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 다목적 회관, 양파 가공시설 등 4개 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한다.

함평군은 지난 2005년 해보 모평권역을 시작으로 2007년 신광 가덕권역, 2009년 대동 철성권역, 2010년 손불 해당권역 등 모두 4곳이 농촌마을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철성권역은 발전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인근에 조성중인 골프장과 대안학교 등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촌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 사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TV 출연 '진도 운림 예술촌' 진도군 의신면 사상마을에 자리한 '운림예술촌'이 TV 프로그램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운림예술촌'은 지난 2004년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특산품 홍보관과 전통 문화체험 등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서남권 기업 설 상여금·휴일 줄어

업체 51% 지급·평균 휴무 3.3일

전남 서남권 지역기업들의 올해 설 휴무일과 상여금이 모두 줄어들 예정이다.

목포 상공회의소가 최근 서남권 지역 주요 제조업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 휴가 및 상여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휴기간은 법정 공휴일인 3일 휴무가 71%로 가장 많았으며 4일 휴무가 17%, 5일 이상 1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휴무일수는 3.3일로 올해 설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서 지난해 평균 3.7일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여금 지급업체 수는 조사대상기업의 51%로 지난해 45%보다 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급규모를 보면 정기 또는 특별상여 형태로 지급하는 업체(72%)가 평균 기본급여의 74%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78%에 비해서 4포인트 감소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업체(28%)도 지난해 평균 38만원보다 줄어든 3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여금 지급규모의 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긴축경영을 비롯해 연봉제 실시, 설 상여금을 기본급여에 포함하면서 별도 정액(금일봉)으로 지급하는 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시 관광객 유치 '특명'

숙박·차량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목포시가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내외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테마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목포시는 올해 새로운 인센티브 항목을 발굴하고 기존의 지원사항도 일부 상향 조정했다.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개별 관광객 ▲목포 테마관광상품 이용업체 등이다.

내국인 단체관광객이 관내 숙박업소중 최우수 숙박업소에서 1박1식을 할때 일반 7명 이상, 학생 20명 이상일 경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각각 1인당 5천원, 2천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외국인 10명 이상, 무안공항 이용 내국인의 경우에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각각 1인당 1만원의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개별관광객 숙박비도 지원한다.

무안공항 이용자 및 KTX ~제주도, 홍도, 흑산도 선박을 이용했거나 이용할 승선권 소지자가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2인 1실 기준 최대 1만7천500원 한도로 숙박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목포 테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항목을 신설했다.

목포 테마관광(당일)상품 운영시 차량비 5만원을 지원하며, 관광열차를 이용해 지역 전세 버스로 목포관광시 전세버스비 1만원을 지원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여행사 등에서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는 재정 지원사항을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의(061-270-8697)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光州日報 전남서부취재본부
(061-278-8111)
목포 무안 신안 완도 영광 진도 함평 해남
본 부 장 이종태
정은조 국장
임영춘 부국장
조완남 부장
박현영 부장
이상선 부장
박희석 차장
조익상 기자
황운학 기자
김민준 기자
김병관 기자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